

벤처중소기업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품혁신의 매개효과

배호영(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초빙교수)*

국문요약

본 연구는 벤처중소기업에 초점을 두고 일과 생활의 균형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제품혁신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실증 분석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성장의 균형), 제품혁신, 기업성과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한 뒤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영남지역(대구·경북지역 및 부산·경남지역) 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 500부를 배포 및 회수하여 162부의 유효 표본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과 생활의 균형의 영역인 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성장의 균형 중 일과 성장의 균형만 제품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제품혁신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근로자들의 자기계발이나 교육훈련임을 시사하며, 기업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자기계발 시간 부여, 자기계발 경비 지원,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등이 반드시 필요함을 제시한다. 둘째, 제품혁신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벤처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성장 또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특히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제품혁신이 다른 혁신에 비해 매우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제품혁신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제품혁신이 매개된 상태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의 영역인 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성장의 균형 모두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넷째, 제품혁신은 일과 생활의 균형의 영역인 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성장의 균형 중 일과 성장의 균형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만 긍정적(+)으로 매개했다. 이는 일과 성장의 균형이 제품혁신을 통해 기업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해 주며, 벤처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업무 외 자기계발이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제품혁신에 도움이 되며 이러한 제품혁신은 결국 기업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벤처중소기업의 일과 성장의 균형에 대한 특별한 관리 필요성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핵심주제어: 일과 생활의 균형, 제품혁신, 기업성과, 벤처기업, 매개효과

1. 서론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와 신세대 근로자들의 직업의식 전환으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과거 제조업이 중심이었던 산업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주·야 교대근무를 서면서 가정보다는 회사와 일에 더 집중하며 평생 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의 부도 또는 인수합병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리해고, 명예퇴직, 비정규직 등 노동의 유연성이 증대되며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노동의 유연성 증대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신세대의 직업의식 변화, 창조경제시대 도래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 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근로자들은 임금을 많이 받을 수만 있다면 힘들고 위험한 직무도 마다하지 않았으나, 최근 여성 및 신세대 근로자들은 힘들고 위험한 직업에 지원하지 않고 임금보다는 개인의 여가, 취미, 가족, 경력 개발 등 개인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며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아웃소싱 형태의 단순 제조업 형태가 많아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러한 빈자리는 후진국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 점차 대체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개인의 삶의 질을 중요시 하는 새로운 경영방식은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라고 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은 결국 변화된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즉 기업들은 여성 및 신세대 근로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

*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초빙교수, 경영학 박사, flute20@empas.com

· 투고일: 2015-04-24 · 1차수정일: 2015-06-20 · 2차수정일: 2015-08-04 · 게재확정일: 2015-08-10

족시키면서 근로자들의 창의성과 동기부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다양한 사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주 5일제 근무, 공무원 유연근무제, 남성 육아휴직 제도, 근무시간 단축 등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법률」이 2014년 국내 최초로 국회에 상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주제를 창의력과 혁신이 요구되는 벤처중소기업에 적용하여, 벤처중소기업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품혁신에 기여하여 결국 기업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이 혁신과 기업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모델을 발견함으로써, 벤처중소기업의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가설설정

2.1 일과 생활의 균형과 제품혁신

2.1.1 일과 생활의 균형 (Work-Life Balance)

일과 생활의 균형이란 근로자들의 일과 일 이외의 생활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삶의 만족과 생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균형을 배려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간과해왔던 근로자들의 심리적 균형을 배려하는 점이다. 이를 통해 임금, 승진 등과 같은 외적 보상뿐만 아니라 행복, 재미, 경력개발 등 내적 보상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일과 생활의 균형의 최종 목표이다(Kim & Lee, 2009).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연구는 Dubin(1956)의 자신의 생활 관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출발했다. Dubin은 근로자들을 연구한 결과, 응답자의 10% 정도만 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90% 정도는 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아닌 개인적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자신의 생활의 중심이 일 보다는 개인 생활에 있음을 증명했다. 이후 이러한 개념은 Rapoport, Rapoport & Strelitz(1975)에 의해서 더욱 발전했는데, 그들은 개인의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개인의 삶을 일(Work), 가정(Family), 여가(Leisure)로 구성된다고 처음 언급하였다(Choo et al., 2014). 일과 생활의 균형의 정의는 학자들간 조금씩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Greenhaus, Collins & Shaw(2003)은 일과 생활을 균형을 삶의 각 영역에 동일한 수준의 주의, 관심,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Marks & MacDermid(1996)는 서로 다른 삶에서의 역할들(근로자, 부모, 배우자, 시민, 나 등)에 대해 동일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Kim & Lee, 2009). 또한 Kim et al.(2005)은 일과 일 이외의 영역(가족, 여가, 개인의 성장 및 자기개발 등)에 시간과 심리적·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에 대해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정의하

였고, Kim & Park(2008)은 일과 삶의 영역으로 일, 가족, 여가(여가생활 및 건강), 성장(교육 및 자기개발)으로 구성된 4가지 영역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일과 일 이외의 생활 간의 지각된 균형감으로 정의하고, Kim & Park(2008)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의 영역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Work-Family Balance), 일과 여가의 균형(Work-Leisure Balance), 일과 성장의 균형(Work-Development Balance)을 설정하여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1.2 제품혁신 (Product Innovation)

혁신(Innovation)이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품, 프로세스, 경영방식 등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은 기업의 성장 또는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혁신의 정의를 살펴보면, Schumpeter(1934)는 새로운 상품과 공정의 도입, 신규시장의 개척, 공급원의 확보, 신규조직의 등장으로 정의하였고, Roberts(1988)는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체계를 탐색하면서 상업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고, Amabile(1988)은 개인이나 조직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여 유용한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Bae, Rhee & Kim, 2014).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혁신을 기업의 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제품, 프로세스, 경영방식의 변화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혁신의 유형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혁신, 프로세스의 변화를 추진하는 프로세스혁신,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하는 경영혁신으로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Damanpour, 1991; Barney & Griffin, 1992; O'Class & Weerawardena, 2009), Jeong & Kim(2008)은 국내 150개 중소기업의 혁신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혁신의 대상 중 품질혁신과 원가혁신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Koo, 2012) 이러한 품질혁신과 원가혁신은 제조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Sung(2005)은 제품혁신의 경우 벤처중소기업과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비혁신형 중소기업에 비해 더욱 혁신적이라고 주장했다(Lee, Kang & Park, 2007).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제품혁신에 초점을 두고 실증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1.3 일과 생활의 균형과 제품혁신 간의 관계(가설1)

일과 생활의 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과 생활의 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과 생활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와 일과 생활의 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변수를 도출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보면, 학자들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높은 업무효율성, 짧은 근무시간,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제도적 지원 등은 일과 생활에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은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스트레스 등 조직유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 Lee, 2009). 특히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급격한 기술변화, 짧은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창의적 제품개발 요구, 틈새 시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혁신이 필수적인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품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조직몰입, 직무만족 등 조직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확장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이 근로자들의 창의력과 혁신의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여 제품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제품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일과 가정의 균형은 제품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일과 여가의 균형은 제품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일과 성장의 균형은 제품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제품혁신과 기업성과

2.2.1 기업성과 (Corporate Performance)

기업성과(Corporate Performance)는 기업의 목표달성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Robbins, 1984), 기업의 효과성(Effectiveness)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기업성과는 주로 종속변수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학자 또는 연구모형에 따라 기업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는 상이하다. 예를 들어 기업성과 관측 변수로 Dyer & Reeves(1995)는 인적자원성과, 조직성과, 재무성과, 시장기준성과를 제시했으며, Koh(2011)는 최근의 ROS(Return On Sales), ROA(Return On Assets), 시장점유율 및 종업원수의 증가율을 제시했다(Bae, 2015).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기업성과를 조직의 목표달성 정도로 정의하고,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량 지표인 시장점유율, 수익성, 생산성 측면에서 실증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2.2 제품혁신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가설2)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제품혁신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는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Langerak(2003)는 제품혁신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으며, Bayus, Erickson & Jacobson(2003)은 제품혁신이 기업의 매출 증대와 비용절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일부 연구에서 상반되는 의견도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제품혁신은 기업성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일과 생활의 균형과 기업성과(가설3)

일과 생활의 균형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면, 그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의견 일치와 일치 않고 있다. 예를 들어, Perry-Smith & Blum(2000)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 기업의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 기업성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Lee & Kim(2009)은 일과 생활의 균형(가족친화제도)이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Hyde(1996)는 보육휴가 및 출산휴가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심리적 상태를 호전시키는 데에는 기여하지만 재무적 기업성과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일과 가정 영역에서의 이중적 역할 부담을 가중시켜 생산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Ahn & Shin, 2010). 이와 같이 일과 생활의 균형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된 주장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일과 생활의 균형이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보다 많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이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일과 생활의 균형은 기업성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일과 가정의 균형은 기업성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일과 여가의 균형은 기업성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일과 성장의 균형은 기업성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제품혁신의 매개효과(가설4)

2.1.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벤처중소기업의 일과 생활의 균형(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성장의 균형)은 근로자들의 창의력과 혁신의지에 동기부여하여 제품혁신 시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2.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품혁신은 벤처중소기업의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해주며 매출액 향상 등 기업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벤처중소기업의 일과 생활의 균형은 노동생산성,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 기업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해보면 벤처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업무 외 가정, 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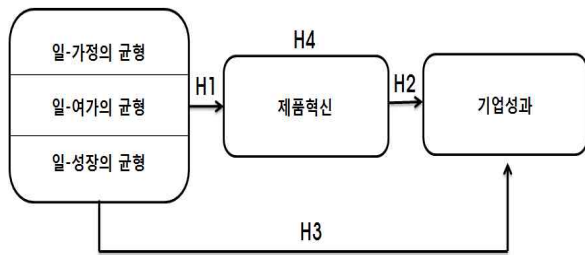
성장 등 생활의 균형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여유는 제품 혁신에 힘을 기울 수 있게 만들어주며 결국 기업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4. 제품혁신은 일과 생활의 균형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 4.1. 제품혁신은 일과 가정의 균형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 4.2. 제품혁신은 일과 여가의 균형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 4.3. 제품혁신은 일과 성장의 균형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과 가설을 근거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표본과 자료수집

영남지역(대구·경북 및 부산·경남지역) 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설문지 500부를 배포하여 190부를 회수(회수율 : 38%)하여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결측이 많은 설문지 28부를 제외한 162부를 유효표본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AMOS 18.0을 사용하여 타당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분석 등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3.3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법을 이용한 실증분석 연구로써,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통해 각 변수별로 충분히 검증된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및 활용하였다.

3.3.1 일과 생활의 균형

본 연구에서는 Rapoport, Rapoport & Strelitz(1975), Kim et al.(2005), Kim & Lee(2009)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일과 일 이외의 생활 간의 지각된 균형감으로

정의하고, Kim & Park(2008)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의 영역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Work-Family Balance), 일과 여가의 균형(Work-Leisure Balance), 일과 성장의 균형(Work-Development Balance)을 설정하여 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일과 가정의 균형 설문문항은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푼 적이 없음”, “나의 가정생활이 만족스러움”, “나의 일과 가정생활을 서로 조화시키기가 어렵지 않음”으로 구성하였고, 일과 여가의 균형 설문문항은 “최근에 영화, 공연 등 여가활동을 한 적이 있음”, “주말이 되면 여가활동을 하고 싶어짐”, “나의 여가생활이 만족스러움”으로 구성하였고, 일과 성장의 균형 설문문항은 “다른 사람에 비해 경력관리에 관심이 많음”, “나는 자기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자기개발을 잘하고 있음”으로 구성하였다.

3.3.2 제품혁신

본 연구에서는 Damanpour(1991), Barney and Griffin(1992), O'Class and Weerawardena(2009)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품혁신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총 3개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은 “우리 회사는 경쟁사보다 새롭게 도입된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수가 많음”, “우리 회사는 경쟁사보다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선구자적 기질이 강함”, “우리 회사는 경쟁사보다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R&D 비용에 더 많이 투자함”으로 구성하였다.

3.3.3 기업성과

본 연구에서는 기업성과를 조직의 목표달성 정도로 정의하고, 총 3개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은 “우리 회사는 최근 3년 동안 경쟁기업들에 비해 시장점유율 증가가 더 높음”, “우리 회사는 최근 3년 동안 경쟁기업들에 비해 수익성이 더 높음”, “우리 회사는 최근 3년 동안 경쟁기업들에 비해 생산성이 더 높음”으로 구성하였다.

IV. 실증 분석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빈도분석을 통해 분석한 표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기업 업종은 제조업이 56.8%(92명), 비제조업이 43.2%(70명)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설립 형태는 민간부문이 100%(162명)를 차지한다. 셋째, 기업 규모는 50명 미만 기업이 23.4%(38명), 50 ~ 100명 미만 기업이 41.3%(67명), 100 ~ 300명 미만 기업이 35.3%(57명)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기업의 설립연도는 1962년부터 2012년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직급은 CEO·임원 7.4%(12명), 차부장 7.4%(12명), 과장 20.4%(33명), 대리 19.8%(32명), 사원 45.0%(73명)를 차지

하고 있다. 둘째, 응답자의 성별은 남 64.8%(105명), 여 35.2%(57명)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16.0%(26명), 30대가 36.4%(59명), 40대가 37.7%(61명), 50대가 9.9%(16명)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응답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80.9%(131명), 비정규직이 19.1%(31명)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표본의 특성 (n=162)

구분	변수	빈도 (명)	비율 (%)
기업 업종	제조업	92	56.8
	비제조업	70	43.2
설립 형태	민간	162	100.0
	공공	0	0
기업 규모	50명 미만	38	23.4
	50 ~ 100명 미만	67	41.3
	100 ~ 300명 미만	57	35.3
설립 년도	최대	1962년	
	최소	2012년	
응답자 직급	CEO/임원	12	7.4
	차/부장	12	7.4
	과장	33	20.4
	대리	32	19.8
	사원	73	45.0
응답자 성별	남	105	64.8
	여	57	35.2
응답자 연령	20대	26	16.0
	30대	59	36.4
	40대	61	37.7
	50대	16	9.9
응답자 고용형태	정규직	131	80.9
	비정규직	31	19.1

4.2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활용된 변수의 측정방향에 대한 타당도, 신뢰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AMOS 18.0을 사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분석하였다. 먼저, 집중타당도 검증시 표준화 요인부하량(Standard Estimate)이 .5 이상, C.R값이 1.965 이상,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추출분산)값이 .5 이상,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가 .7 이상이면 집중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모형의 경우 <표 2>와 같이 구성항목들의 일-여가균형2를 제외한 모든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5 이상, 모든 C.R값은 1.965 이상, 일-가정균형을 제외한 모든 AVE값은 .5 이상, 모든 개념신뢰도는 .7 이상이므로 집중타당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여가균형2의 경우 요인부하량값이 .383으로 .5 미만이지만, C.R값이 4.180으로 1.965 이상이며 p값도 .001 이하이므로 제거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활용하였고, 일-가정균형의 경우 AVE값이 .459로 기준인 .5에 조금 못 미치지만 개념신뢰도가 .716으로 기준인 .7 이상이므로 그대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판별타당도 검증은 두 구성개념간 각각의 AVE값과 두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제곱값을 비교하여 AVE값이

상관관계의 제곱값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모형의 경우 <표 3>에서와 같이 모든 구성개념의 AVE값이 상관관계의 제곱값을 상회하므로 판별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모형의 개념신뢰도는 모두 .7 이상이므로 충분한 내적일관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표 2>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Variables	Items	Standard Estimate	SE	C.R	Composite Reliability	AVE
일-가정 균형	1	.551	-	-	.716	.459
	2	.687	.204	4.834		
	3	.616	.219	4.759		
일-여가 균형	1	.646	-	-	.733	.502
	2	.383	.113	4.180		
	3	.869	.217	5.546		
일-성장 균형	1	.614	-	-	.819	.603
	2	.767	.177	6.759		
	3	.755	.190	6.727		
제품 혁신	1	.873	-	-	.920	.794
	2	.888	.072	13.357		
	3	.763	.067	11.250		
기업 성과	1	.869	-	-	.928	.810
	2	.859	.083	12.630		
	3	.795	.084	11.624		

$\chi^2=118.017$, d.f=80, p=.004, RMR=.038, GFI=.912, AGFI=.868, NFI=.883, TLI=.945, CFI=.958, RMSEA=.054

4.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간 상관관계는 0.01 유의수준(양쪽) 하에서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변수들간 상관관계는 본 연구모형을 전반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공차한계(tolerance)값이 0.1 이상, VIF값이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3> 상관관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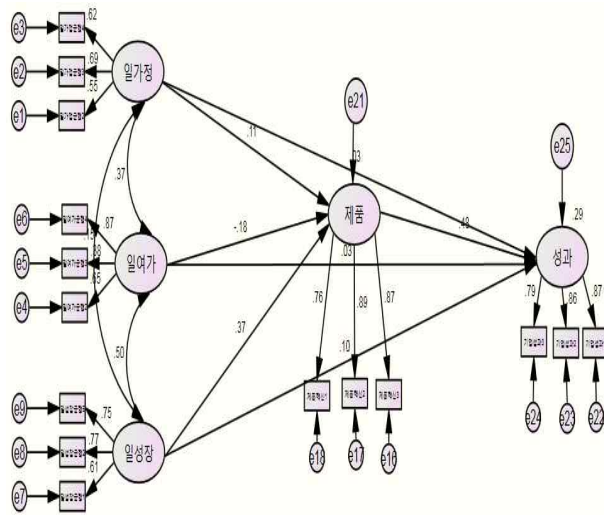
	M	SD	AVE	일-가정 균형	일-여가 균형	일-성장 균형	제품 혁신	기업 성과
일-가정 균형	3.55	.65	.459	1				
일-여가 균형	3.36	.70	.502	.373** (.139)	1			
일-성장 균형	3.38	.68	.603	.518** (.268)	.486** (.246)	1		
제품 혁신	3.09	.73	.794	.233* (.054)	.045 (.002)	.337** (.114)	1	
기업 성과	3.23	.68	.810	.209 (.044)	.112 (.013)	.295** (.087)	.522** (.272)	1

주1) * : p < 0.05 ** : p < 0.01

주2) () : (Correlation of Variables)²

4.4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AMOS 18.0을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chi^2=118.017$ (df=80, p=.004), RMR=.038, GFI=.912, AGFI=.868, RMSEA=.054, NFI=.883, TLI=.945, CFI=.958로, p값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형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전반적으로 지지된다고 판단하고, 연구모형의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4.5 가설 검증

4.5.1 직접효과 검증(가설1, 가설2, 가설3)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본 연구모형의 직접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가설1의 검증결과, 일과 가정의 균형이 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109, C.R=.843, p=.399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으며, 일과 여가의 균형이 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179, C.R=-1.567, p=.117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으며, 일과 성장의 균형이 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만 표준화된 요인부하량=.369, C.R=2.671, p=.008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가설검증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설1-1과 가설1-2는 기각되었으며, 가설 1-3만 채택되었다. 즉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일과 생활의 균형 중 일과 성장의 균형만 제품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므로, 벤처중소기업 경영자는 제품혁신을 위해 근로자들의 자기개발, 교육훈련, 경력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제품혁신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가설2의 검증결과, 표준화된 요인부하량=.478, C.R=5.203, p<.001로 유의수준 .05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가설검증 결과 가설2는 채택되었다. 이는 Langerak(2003), Bayus, Erickson & Jacobson(2003) 등의 선행연구와 같이 벤처중소기업의 제품혁신은 제품경쟁력 및 제품개발역량을 강화시켜 기업성가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벤처중소기업 경영자는 제품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제품혁신이 매개된 상태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가설3의 검증결과, 일과 가정의 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035, C.R=.294, p=.769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으며, 일과 여가의 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027, C.R=.258, p=.796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으며, 일과 성장의 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표준화된 요인부하량=.102, C.R=.802, p=.422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가설검증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설3-1, 가설3-2, 가설3-3 모두 기각되었다.

다만, 제품혁신이 매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분석한 결과, 일과 가정의 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099, C.R=.769, p=.442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으며, 일과 여가의 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055, C.R=-.483, p=.629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으며, 일과 성장의 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265, C.R=1.975, p=.048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4> 직접효과 분석결과

경로 (가설)	Standard Estimate	S.E	C.R	P	채택 여부
H1-1. 일·가정의 균형 → 제품혁신	.109	.190	.843	.399	기각
H1-2. 일·여가의 균형 → 제품혁신	-.179	.134	-1.567	.117	기각
H1-3. 일·성장의 균형 → 제품혁신	.369	.206	2.671	.008	채택
H2. 제품혁신 → 기업성과	.478	.076	5.203	***	채택
H3-1. 일·가정의 균형 → 기업성과	.035	.144	.294	.769	기각
H3-2. 일·여가의 균형 → 기업성과	.027	.102	.258	.796	기각
H3-3. 일·성장의 균형 → 기업성과	.102	.157	.802	.422	기각

*** : p < .001

4.5.2 간접효과 검증 (가설4)

일과 생활의 균형(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성장의 균형)이 제품혁신을 통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 가설4를 분석하기 위하여 Hair et al.(2006)의 매개분석,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소벨테스트(Sobel)를 함께 활용하였다.

첫째, Hair et al.(2006)은 매개분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

차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지를 검증한 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가 개입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만 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하면 부분매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상태로 변하면 완전매개가 된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적용해보면, 일과 생활의 균형 중 일과 성장의 균형만 기업성과와 상관관계가 .295($p < .01$)로 유의하며, 일과 성장의 균형과 제품혁신 간의 상관관계가 .337($p < .01$)로 유의하며, 제품혁신과 기업성과 간의 상관관계가 .522($p < .01$)로 유의하다. 그리고 제품혁신이 개입된 상태에서 일과 성장의 균형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가 <표 4>와 같이 .295에서 .102로 유의하지 않은 상태로 변했기 때문에 완전매개로 볼 수 있다. 즉 가설4-3만 유의수준 .05에서 채택되었다. 둘째, AMOS의 비모수 부트스트래핑(Non-parametric Bootstrapping)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가정의 균형이 제품혁신을 통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인 가설4-1의 분석 결과는 $p = .392$ 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으며, 일과 여가의 균형이 제품혁신을 통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인 가설4-2의 분석 결과는 $p = .126$ 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으며, 일과 성장의 균형이 제품혁신을 통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인 가설4-3의 분석 결과는 $p = .018$ 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셋째, 소벨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가정의 균형이 제품혁신을 통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인 가설4-1의 분석 결과는 소벨테스트값=.831, $p = .406$ 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으며, 일-여가의 균형이 제품혁신을 통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인 가설4-2의 분석 결과는 소벨테스트값=-1.500, $p = .134$ 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으며, 일-성장의 균형이 제품혁신을 통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인 가설4-3의 분석 결과는 소벨테스트값=2.374, $p = .018$ 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Sobel, 1982).

종합해보면, 일과 생활의 균형 중 일과 성장의 균형만 제품혁신을 통해 기업성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일과 가정의 균형과 일과 여가의 균형은 제품혁신을 통해 기업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일과 성장의 균형이 제품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기업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모델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V.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벤처중소기업에 초점을 두고 일과 생활의 균형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제품혁신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실증 분석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영남지역(대구·경북지역 및 부산·경남지역) 벤처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 500부를 배포 및 회수하여 162부의 유효 표본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과 생활의 균형의 영역인 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성장의 균형 중 일과 성장의 균형만 제품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벤처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자기계발 시간부여, 자기계발 경비지원,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등이 제품혁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벤처중소기업 경영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둘째, 제품혁신은 기업성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벤처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성장 또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특히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제품혁신이 다른 혁신에 비해 매우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제품혁신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셋째, 제품혁신이 매개된 상태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의 각 영역인 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성장의 균형 모두 기업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넷째, 제품혁신은 일과 생활의 균형의 영역인 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성장의 균형 중 일과 성장의 균형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만 긍정적(+)으로 매개했다. 이는 일과 성장의 균형이 제품혁신을 통해 기업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며, 벤처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자기계발, 교육훈련, 경력관리 등 성장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제품혁신에 더욱 집중하게 되어 이러한 제품혁신 강화는 결국 기업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최신 실증 분석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일과 성장의 균형에 대한 특별한 관리 필요성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일과 성장의 균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제언

본 연구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표본의 크기와 지역의 한계로 인한 일반화의 한계이다. 본 실증 분석에 활용된 표본 크기는 162개로 일반화를 위해서는 향후 표본 크기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성장의 균형)에 대하여 분석했지만, 향후 본 연구를 확장하여 다중지표 다중원인 모형(Multiple Indicator Multiple Cause: MIMIC)을 통해 일과 생활이 균형에 대해 분석한다면 보다 심도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일과 성장의 균형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제품혁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지만, 향후 제품혁신 뿐만 아니라 경영혁신에 대한 후속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초점을 두었지만 벤처중소기업과 일반중소기업 간의 비교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

- Ahn, E. & Shin, E.(2010). An empirical approach to work-family balance and organizational outcome: Focusing on financial performance and female employees' turnover,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0(4), 177-216.
- Amabile, T. M.(1988). A mode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organiz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0(1), 123-167.
- Bae, H.(2015). The mediating effect of corporate reputation between the organizational slack and corporate performance in venture SM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2), 17-25.
- Bae, H., Rhee, J. & Kim, C.(2014). The effects of SMEs' corporate slack on innovation: Moderating effect of corporate reputation, *The Korea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36(2), 23-49.
- Barney, J. B. & Griffin, R.(1992).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s: strategy, structure and behavior*, Boston, MA: Houghton Mifflin.
- Bayus, B. L., Erickson, G. & Jacobson, R.(2003). The financial rewards of new product introductions in the personal computer industry, *Management Science*, 49(2), 197-210.
- Choo, W., Hwang, H, Choi, I. & Park, J.(2014). Work-life balanc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otiv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6(1), 53-78.
- Damanpour, F.(1991). Organizational innovation: A meta-analysis of effects of determinants and moderato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3), 550-590.
- Dubin, R.(1956). Industrial workers' world: A study of the "central life interests" of industrial workers, *Social Problem*, 3(3), 131-142.
- Dyer, L. & Reeves, T.(1995). Human resource strategies and firm performance: What do we know and where do we need to go?,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6(3), 656-670.
- Greenhaus, J. H., Collins, K. M. & Shaw, J. D.(2003). The relation between work-family balanc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3), 510-531.
- Hair, J. F. Jr.,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Hyde, J. S.(1996). Gender and cognition: A commentary on current research,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 8, 33-38.
- Jeong, K. L. & Kim, C. E.(2008). Innovation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 of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Plant Engineering*, 13(1), 31-40.
- Kim, C. & Park, C.(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work-life balance' scale, *Journal of Leisure Studies*, 5(3), 53-69.
- Kim, C., Park, C. Sohn, Y. M. & Jang, H.(2005).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n 'work-life balance' and its effectiveness, *Journal of Leisure Studies*, 2(3), 29-48.
- Kim, J. & Lee, Y(2009).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structure, organizational culture, WLB policy on organizational efficiency – focused on mediation effect of work-life balance,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6(4), 57-77.
- Koh, I. K.(2011). A study on the effects of business plan upon firm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6(4), 111-135.
- Koo, I. S.(2012). The effects of innovation activity to business performance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4), 1-8.
- Langerak, F.(2003). The effect of market orientation on positional advantag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Strategic Marketing*, 11(2), 93-115.
- Lee, B. & Kim, J.(2009). A study on the effect of family-supportive programs over organizational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19(2), 153-175.
- Lee, B. H., Kang, W. J. & Park, S. M.(2007). *Comparison of innovation competence between innovative SMEs and general SMEs: Empirical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Spring 2007: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 Marks, S. R. & MacDermid, S. M.(1996). Multiple roles and the self: A theory of role bala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2), 417-432.
- O'Class, A. & Weerawardena, J.(2009). Examining the role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international market performance in SME Internationalization,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43, (11), 1325-1348.
- Perry-Smith, J. E. & Blum, T. C.(2000). Work-family human resource bundles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6), 1107-1117.
- Rapoport, R., Rapoport, R. N. & Strelitz, Z.(1975). *Leisure and the family life cycle*, Oxford, England: Routledge & Kegan Paul.
- Robbins, S. P.(1984). *Essenti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New York: Prentice-Hall.
- Roberts, E. B.(1988). Managing invention and innovation, *Research Technology Management*, 31(1), 11-29.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obel, M.(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ung, T. K.(2005). Is Venture Firm Always Innovative?: Based on KIS 2002,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8(1), 117-139.

The Effects of Work-Life Balance on Corporate Performance: Mediating Effect of Product Innovation in Venture SMEs

Hoyoung Bae*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product innovation between work-life balance (work-family balance, work-leisure balance and work-development balance) and corporate performance in venture SMEs. We test four hypothesis. First, we test the hypothesis that work-life balance has a positive effect on product innovation. Second, we test the hypothesis that product innov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Third, we test the hypothesis that work-life balance has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Fourth, we test a positive mediating role of product innovation between work-life balance and corporate performance. For this research, we administered the questionnaire surveys, and got the 162 effective data of Korean venture SMEs. We use CFA and SEM analysis of research model by AMOS 18.0.

As a result, we can find the four meaningful results. First, work-life balance, especially only work-development balance, has a positive effect on product innovation. Second, product innov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Third,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k-life balance (work-family balance, work-leisure balance and work-development balance) and corporate performance are no significant after the mediating variable (product innovation) is added. Fourth, product innovation has a positive mediating effect between work-life balance, especially only work-development balance, and corporate performance.

Although this research has some limitations of generalization because of the limited size of samples, we have meaningful information related to the venture companies in the academic and business field. Additionally, the Multiple Indicator Multiple Cause (MIMIC) model is recommended in the future research.

Keywords : Work-Life Balance, Product Innovation, Corporate Performance, Venture Firm, Mediating Effect

* Visiting Professor, Ph. D, Department of Railroad Management, Woosong University, flute20@empas.com